

2023. 4. 19.(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4월 19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사업담당관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2133-9435
용산사업팀장	고경곤	2133-9442
담당자	류수미	2133-9446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4매

서울시, 용산기지 및 주변지역 이야기 담아 과거와 미래 잇는 전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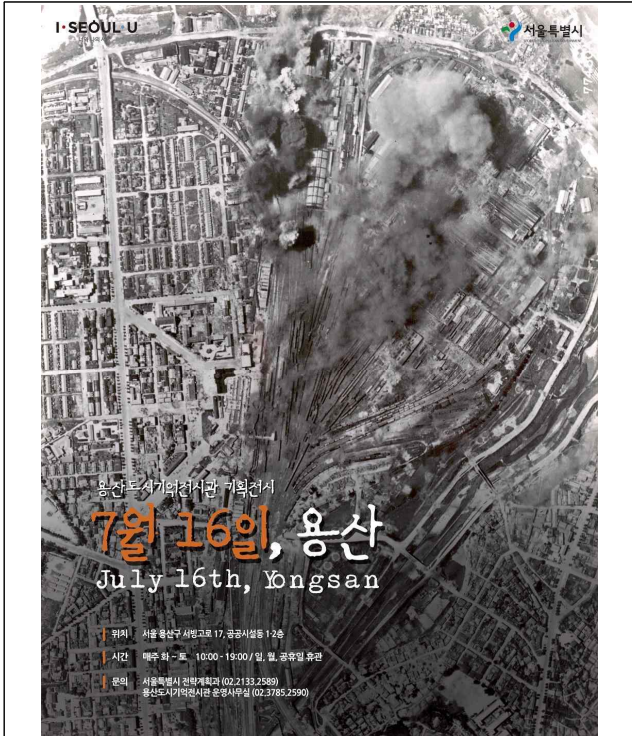
- 용산도시기억전시관, 용산 지역 역사성 담아 시민과 소통하는 세 번째 기획전시 구상
- 1960~70년대 용산 미군기지 일대 도시경관 변천 과정 담은 전시 7월경 개최
- 온라인 홍보 채널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과 생동감 있는 소통형 전시 계획

- 서울시는 용산도시기억전시관에서 용산기지 및 주변 도시지역 일대의 역사성과 장소성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 증진과 도시경관 변화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한 세 번째 기획전시를 추진한다.
 - 용산도시기억전시관은 '21년 4월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공공시설동에 개관하여 전시관과 아카이브 공간(기록방) 및 세미나실,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용산의 도시변천사를 기록하고 있다.
- 그간 서울시는 최초의 국가공원인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소통의 일환으로 시민들과 함께 용산 지역의 역사성·장소성을 바탕으로 2021년부터 매년 기획전시를 추진하고 있다.

- 2021년 첫 기획전시인 ‘7월 16일, 용산’은 1950년 7월 16일 미군이 서울을 재탈환하기 위해 용산철도정비창 및 용산기지 일대를 폭격한 모습 등을 공개하며 6·25 전쟁 당시 서울과 용산의 도시상을 생생히 전달하였다.
 - 2022년, 두 번째 기획전시에서는 ‘서울 용산: 재건에서 도약까지’라는 주제로 1950년 9월 28일 서울수복을 시작으로 1960년까지 이어지는 서울 주민들의 삶을 다룬 생활사 중심의 사료들로 구성하였다.
- 올해 추진 중인 기획전시는 2022년 용산공원 시범 개방 등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에 발맞춰 1960~70년대 용산미군기지 및 주변 도시지역의 도시경관 변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전시로 기획하고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전시환경을 구축하여 7월경 개최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급변하는 대한민국 속에서 도시개발 시작을 알렸던 1960~70년대 시기의 용산 및 용산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도시경관 사진·영상 등 역사적 사료를 전시 관람객들은 물론 용산공원 시민소통공간 온라인 홍보 채널로도 제공해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도시변천사를 확인하고 즐길 수 있도록 소통형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
- 흥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용산도시기억전시관 기획전시를 통해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구성하여, 용산의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확대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2021년 기획전시 : '7월 16일, 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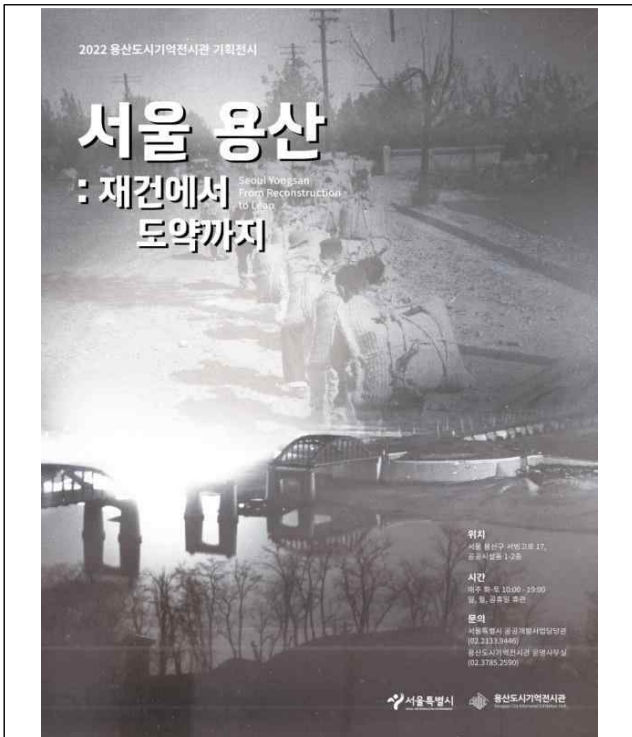
포스터



[대표이미지] 1950년 8월 4일의 폭격으로 철도차량 및 선로, 건물들의 피해상황이 나타남

붙임(2)

2022년 기획전시 : '서울 용산: 재건에서 도약까지'



포스터



[대표이미지] 1953년 한강에 쌓여진 쌀이 서울 곳곳의 유통지점으로 운반되고 있는 모습

붙임(3) 용산도시기억전시관 리플렛

Yongsan City Memorial Exhibition Hall

용산도시기억전시관

용산도시기억전시관은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용산사고(기억과성찰의 생활과 고혼의 장소이자, 다양한 시대의 흔적이 쌓여진 역사적 공간인 용산의 발전을 담고 있습니다. 2009년에 발생한 용산사고를 기억하고, 용산의 도시 발전사, 미래 용산공원에 대한 기획-이카이프 전시 공간과 함께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소통창구가 될 전시관입니다.

① 전시관 안내도



① 관람안내

관람 정보

- 운영시간: 화~토, 10:00~19:00 (18:30까지 입장가능)
- 휴관일: 매주 일/월요일, 법정공휴일

단체관람 안내

- 단체관람 시 사전에 예약하면 전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전세입실 및 단체일일요시 문의 (02-3785-2590)

이용수칙

- 전시관 내에서 음식을 섭취는 불가하니 합제해드립니다.
- 반려동물 출입 및 개인 촬영방송 등은 금지합니다.
- 전시관 내 외부 공간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상각주시기 바랍니다.

② 오시는길

- 용산구 한강로 서면고로 17 용산선릉빌딩 17층 (용산역 12분)
- 지하철 | 1호선: 용산역 1번출구 도보 5분
- | 4호선: 신용산역 2번출구 도보 3분
- 버스 | 용산월드 고등학교 - 400, 502



관련 시설 안내



서울특별시

용산도시기억전시관

용산도시기억전시관 Yongsan City Memorial Exhibition Hall



1F EXHIBITION 용산도시기억전시관

기억방

서울 용산 : 재건에서 도약까지

2022년 기획자는 '재건에서 도약까지'라는 주제로 1950년 9월 22일 서울수복을 시작으로 1960년경이 이전하는 서울사람들의 삶에 대한 기록을 구성했다. 본 기획전의 앞에 후기의 아카이브 사진의 영상은 다음 세대를 나누어 줄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만들어 온 삶의 궤적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다시 읽은 서울 기록 >> 화려하는 서울 영상 >> 하나 둘 서울 사람



용산사고 기억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는 다양한 의견의 충돌로 채워진다. 때로는 그 충돌이 과거에 대한 격앙의 감정을 낳기도 하고, 타인의 삶에 무서움과 공포도 만든다. 그 사례가 된 2009년 1월, 용산사고(기억과 성찰). 전시관에서 진행되는 영상은 삶이 새겨진 상처와 이들과, 성찰의 과정을 담은 용산의 이야기를 표현한 미디어 영상이다.



산책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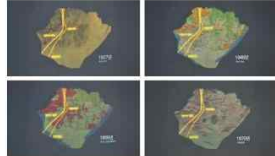
용산 도시 기억의 숲

기억의 숲 미디어 조형물은 이를 계 미디어 물에 스테인드 글라스 미디어 갤러리이다. 조형물 전체 이야기는 '눈 덮인 겨울 밤에 한 명 한 명 떠나는 용산'이라는 용산사고가 난 시간적 메시지를 보여줌에, 성찰의 계를 통해 진정한 도시 사람을 만들어 가고자하는 계기 도출을 위한 목적으로 기획 - 조성된 것이다.



용산도시, 땅의 기록

용산 재개발 7년 동안 세밀한 용산 재개발 방향성으로 만들어져 과거 - 현재까지 변화되어 온 용산의 모습을 연출했다.



2F ARCHIVE 용산도시아카이브

기록방

용산공원 소통공간

용산기억 갤러리 - 용산공원을 '읽는다' 녹지공간 - 용산공원 공원에 대한 소개와 용산의 도시 경관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용산공원 갤러리 (용산기억 갤러리) | 용산공원 용지공 (용산도시아카이브) | 용산공원 소통공간 (용산도시아카이브)



용산기억 아카이브

용산기록 - 용산기억에 관한 해피기록을 (서울시 및 전철)가 수집 자료에 다양한 도시 및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민용 아카이브 및 세밀한 자료의 구성이다.



"용산도시기억전시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